

# 소설부문 심사평\*

김형중

80년 오월 이후로 26년이 지났다. 그 사이 오월 항쟁을 다룬 문학작품들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문학사를 이룰 만큼 양적 축적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80년 오월은 더 이상 '인기있는' 문학적 소재는 아닌 듯싶다. 이 소재를 다룬 작품들의 양이 급격히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송기숙, 황지우, 임철우, 최운, 홍희담, 문순태, 정찬, 박혜강 등이 이룬 성취를 넘어서는 작품을 접해 본 기억이 없다. 아마도 80년 오월이 더이상 금기가 아니게 된 97년 쯤부터 이런 소강상태가 시작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오월 문학 또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21세기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지적은 이런 점에서 절실하다.

올해 5·18 문학작품 공모에 출품된 소설 작품들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다. 26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광주항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오월의 정신을 세대를 거듭해 계승해야 한다면 그 문학적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이 두 가지 화두를 넉넉히 짚어질만한 작품을 간절히 찾았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작품들은 거의 없었다. 끝내 저울질을 계속하게 한 두 작품 외에는.

출품된 대부분의 작품이 소위 '후일담'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의 돌연한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80년 5월 당시의 회상, 그리고 '잊지 말자'를 되풀이하는 관습적인 결말의 구도는 이제 낮익다 못해 식상해진 '오월 문학'의 클리셰다. 향수와 회고의 방식으로 21세기에 오월 정신이 살아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순진하거나 안이한 발상이아닐 수 없다.

그런 대부분의 작품에 비할 때 <그 희미한 시간 너머로>와 <키위जू스와 치즈스틱> 두 작품이 보여준 장점은 유독 도드라졌다. 물론 이 두 작품 역시 '후일담' 형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26년이 지난 지금 항쟁 당사자들이 보여주는 이러저러한 변화와 부침을 아무런 과장이나 신비화 없이 담담하게 보여주려는 용기가 돋보였다. 오월 항쟁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26년 동안 계속되어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사건임에 틀림없다면, 지금의 오월이 보여주는 그늘진 모습에 대한 점검 또한 필수

적이다. 이 작품은 아주 지혜롭고 안정된 문체로 현재의 오월이 처한 다소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루하기도 한 상황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월 정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분명 젊은 작가의 작품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 후자의 경우, 오월 정신의 계승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있던 점이 흥미로웠다. 젊은 여대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지금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항쟁 당사자 한 명을 만나게 하고, 그 둘이 형성하는 공감대를 며칠밤의 동침으로 상징화하는 대담성은 다른 작품들이 보여주는 나태한 회고담을 확연히 넘어서는 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군데군데 거칠게 처리된 문장들, 아직 정연하게 다듬어지지 못한 문체와 구성력 등이 눈에 거슬렸다.

두 작품을 두고 오래 망설였다. 젊은 패기냐, 묵은 관록이냐. 결국 후자를 택했다. 그 내용의 참신성이야 어떠한 문학은 분명 언어를 다루는 예술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다루는 언어를 다 장악하지 못한 서투름은 작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이 묵은 관록을 택한 유일한 이유였다.